

2025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믿음의 행진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걷는 한 주

기간 2025년 04월 14일^(월) ~ 18일^(금) 오전5:30

장소 세상의소금 염산교회

강사 장석현 담임목사

4. 14(월요일) - 겸손은 열매 맺는 신앙의 시작

[특송: 1교구]

본문: 마가복음 11:12~19, (참고) 이사야 29:13

1. 겸손은 자기 상태를 직면하게 합니다.
2. 겸손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3. 겸손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

“주님, 겉모양만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겸손을 위한 되새김

1.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2.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거룩한독서 - 『죽을만큼 겸손하라』 by 앤드류 머레이

4. 15(화요일) - 겸손으로 진리를 선포하라

[특송: 2교구]

본문: 마가복음 12:1~12, (참고) 이사야 5:1~7

1. 겸손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2. 겸손은 외면당해도 진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3.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릅니다.

기도

“주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진리를 전할 때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겸손을 위한 되새김

1. 진리를 말해야 할 상황에서 침묵했던 적은 있는가?
2. 겸손한 진리 전파를 위해 필요한 용기는 무엇일까?

4. 16(수요일) - 값비싼 헌신, 진정한 겸손

[특송: 3교구]

본문: 마가복음 14:3~11, (참고) 사무엘상 16:7

1. 겸손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합니다.
2. 겸손은 겸손은 눈물의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3. 겸손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기도

“주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소서.”

겸손을 위한 되새김

1.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2. 헌신이 낭비라고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4. 17(목요일) - 섬김으로 완성된 겸손

[특송: 4교구(솔틴), 5교구(청년)]

본문: 요한복음 13:1~7, (참고) 이사야 50:5~7

1. 겸손은 종의 마음으로 섬깁니다.
2. 겸손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3. 겸손은 제자 됨의 본을 남깁니다.

기도

“주님, 내가 먼저 낮아져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겸손을 위한 되새김

1. 나는 어떤 방식으로 '발을 씻겨줄 수' 있는가?
2. 예수님처럼 섬기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

4. 18(금요일) - 십자가, 겹손의 절정

[특송: 6교구(새가족)]

본문: 빌립보서 2:5~8, (참고) 이사야 53:3~7

1. 겹손은 자기를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2. 겹손은 침묵으로 고통을 이깁니다.

3. 겹손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기도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겹손을 본받아 나도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겹손을 위한 되새김

1. 십자가의 겹손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2. 순종의 한계선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일까요?

거룩한독서 - 『온유하고 겹손하니』 by 데인 오텔런드

4. 18(성금요일예배) - 침묵 속에 준비되는 겐손의 부활

본문: 마태복음 27:62~66, (참고) 하박국 2:3

1. 겐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2. 겐손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습니다.
3. 겐손은 침묵 속에 성숙합니다.

기도

“주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겐손을 위한 되새김

1.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2. 기다림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고난주간 기도 모음

“주님, 겉모양만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진리를 전할 때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소서.”

“주님, 말이 아닌 삶으로 섬김을 실천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낮아져 공동체를 살리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나도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